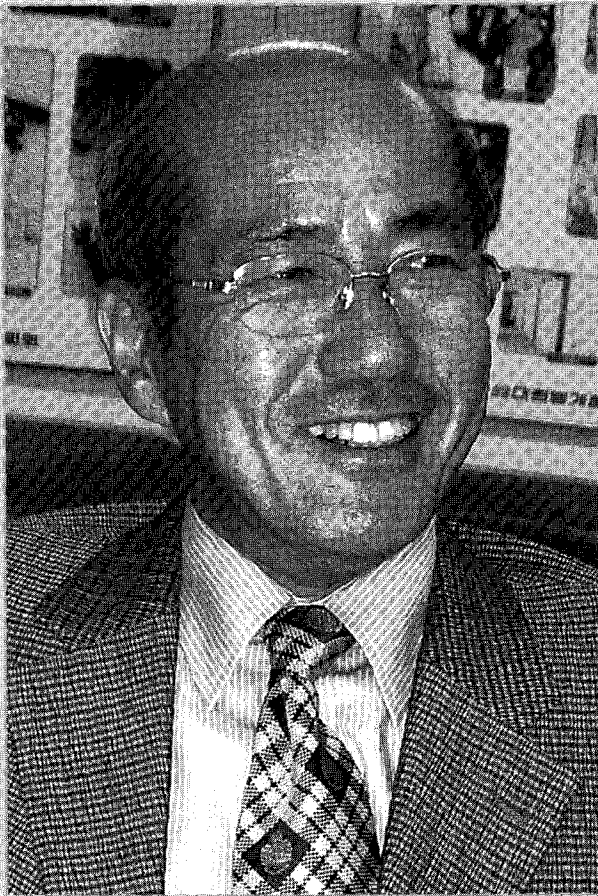


●●● 윤희진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05)추진위원장

박람회장에 오면 비즈니스 성공의 길이 보인다



▲ 윤희진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장
(주)다비육종 대표이사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KOTRA 대전무역전시관, EXPO 과학공원(대전)에서 (사)대한양돈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주최하고, (사)대한양돈협회, KISTOCK 2005 추진위원회, KOTREX가 공동 주관하는 제4회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05)가 열린다. 이에 본고는 KISTOCK 2005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진 (주)다비육종 대표이사를 만나 박람회 준비 사항을 알아보았다.

축산업 특화사업으로 육성

윤희진 위원장은 축산박람회가 3회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지만 이번 4회는 대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생산자와 축산관련 업체가 이용성과 접근성이 편한 지역에 박람회를 개최하여 축산업을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축산박람회는 생산자, 사료·동물약품·기자재·첨가제업체, 학계, 관공서, 연구소

등이 축산업의 기술발전과 설비 현대화 유도, 국내외 축산기자재의 비교전시로 상호 기술 및 정보교환을 통한 기술개발 기여, 전시업체의 해외 투자진출 및 전시제품의 수출촉진 등의 목표를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참여업체와 관람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외국의 유명한 축산박람회에 버금가는 박람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축산물」 슬로건

이번 박람회는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축산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눈여겨 볼만한 행사로 전시행사는 가축분뇨자원화 처리시설, 리모델링 관련 설비 및 기술, 생명공학 관련제품, 축산물 위생, 가공처리시설 등이 있으며, 부대행사로 송아지경매, 종돈 및 젖소 전시, 재래닭 및 특수가금 전시, 애완견 도그쇼, 돼지달리기, 축산물 시식회 등이 있다. 학술행사에서는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축산물을 주제로 한 전국대학생 포스터 경진대회와 각 축종별 세미나가 열리게 된다.

국내외 600개 부스 유치 성공

국내업체 부스 유치는 지난 5월 31일 마감한 결과 그동안 대대적인 홍보 덕택으로 500부스를 마감했으며, 외국업체는 이미 20여개가 확정되었고, 앞으로 50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업체 유치는 지난 5월에 세계저널리스트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 잡지에 축산박람회 홍보와 외국 바이어, 에이전트, KOTRA 해외 무역관, 외국 전시업체와 연계하여 꾸준히 홍보하여 오는 6월 31일 부스마감에 무리가 없을 것이며 최종 마감 부수는 600개(무료부스포함)에 이를 전망이다.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5개 공동주최단체가 나서고, 조합, 관공서, 대학, 학회의 후원을 얻어 생산자와 축산업 관련자에게 도움이 되는 박람회인



▲ 윤희진 추진위원장과 박동희 사무국장이 위원회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만큼 꼭 참석할 것을 계도키로 하였다. 특히 외국인 유치는 전시업체, 바이어, 개별 초청 등을 실시하는데 이미 일본에서 100여명이상이 방문예정에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이라는 것이다.

편리한 서비스와 깜짝 놀랄 방역시스템 도입

윤희진 위원장은 박람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방역 전문시스템을 도입할 구상을 하고 있으므로 축종별 생산자가 박람회장 관람을 꺼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람회 기간 동안 배우고 즐기는 공간 마련을 위하여 전시 참가자에게 숙소, 식사, 관광 등의 알림 서비스를 꼼꼼히 제공할 예정에 있다.

축산박람회 꼭 관람해야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체험박람회, 참여박람회, 비즈니스박람회로 생산자와 관련업체가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국제수준의 전문 박람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양계농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 윤위원장의 말이다. (정리 | 김종준 과장)